

# 민주, 자축보다 민생 주력

이해찬 “더 열심히 서민 생활 챙겨야”

이낙연 “국난 극복 최우선 과제로 진력”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4월 임시국회 소집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튿날인 16일 ‘자축’보다는 민생을 강조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압도적 승리에 자만하기보다 집권여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선이 끝난 이후 4, 5월 국회는 실적 이전만 ‘빈손국회’로 불리지만 민주당은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곧바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소집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더 열심히 서민의 생

활을 챙겨야 한다”며 “선거에 임했던 성실하고 절실했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의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겨주셨다”며 “버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열망을 담아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 앞에 주저 않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총선 결과에 감사함을 표하는 동시에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나왔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부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전 이미 이날

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장 국회가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는 선거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국민께 약속한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장 국회 문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부터 마무리하겠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대책에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하게 논의되지 않을까(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 역시 5월 중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6주기 맞아 묵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세월호 6주기를 맞아 묵념하고 있다.

## ‘완전한 진상규명·처벌’ 약속

범여권, 세월호 참사 6주기 맞아

민주 “유가족 깊은 위로… 책임자 처벌 끝까지 노력할 것”

더시민 “엄숙히 추모… 비정상적 국가시스템에 큰 희생”

정의 “유족 혐오도 넘어…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16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하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8년 전 오늘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모든 국민이 그저 지켜봐왔었다. 그 날 이후 우리는 모두 세월호의 유족”이라며 “세월호가 전하는 죽음과 통곡의 교훈을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

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 회의 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국민 모두의 마음과 함께 엄숙히 추모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위리가 될 수 있도록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는 지도자들의 덕목과 책임의식을 요구했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었다”며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세월호 이후, 코로나19로 이어진 국가적 재난에 대한 위대한 국민들의 큰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추모의 뜻을 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8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조사 기관과 인력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며 “민간 잠수사와 희생된 기간제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혐오표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태는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을 모욕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민주당에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임기 중반을 지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남원시·임실·순창군민의 선택을 받은 무소속 이용호(60) 당선인은 선거운동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듯 당선 소감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용호 당선인은 전

라관에서 유일하게 비(非)민주당 후보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통틀어 지역구 28석 중 27석을 싹쓸이 했다.

16일 이용호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시·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민주당으로 들어가 임기 중반을 지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



“저부터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후보들께 미안”... 눈물 보인 심상정

“진보 야당 역할 더 막중”

“무엇보다... 무엇보다...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결국 눈물을 보였다.

제21대 총선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경기 고양갑 심 대표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비례대표 역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5석 정도만 확보했다.

심 대표는 4·15 총선 직후인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해단식에 침통한 얼굴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비례 1번 류호정 후보 등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들도 함께 했다.

심 대표는 우선 “국민 10명 중 1명이 정의당을 선택해주셨다. 지난 대선보다 많은 267만명의 시민들이 정의당을 지지해줬다”며 “과거 세력

퇴출이라는 민심의 태풍 한 가운데에서도 정의당을 지켜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의당은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에 불과한 의석을 갖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슈퍼여당 시대에 진보야당 역할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유념하겠다.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한 여성과 청년,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겠다”며 “집권여당이 기득권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